

최종 정답

1번	②	11번	③
2번	④	12번	①
3번	③	13번	⑤
4번	④	14번	①
5번	①	15번	④
6번	③	16번	③
7번	③	17번	⑤
8번	③	18번	②
9번	⑤	19번	②
10번	⑤	20번	①

1번 - 허무두 문화

- 키워드 : 제시된 사진, '돼지 그림 토기', '벼농사'
- '이 문화'는 허무두 문화

- 선지 분석

- ① : 허무두 문화는 신석기 문화 - X
- ② : 허무두 문화는 량주 문화로 발전함(수특) - 0
- ③ : 얼리터우 궁전 유적은 얼리터우 문화 - X
- ④ : 도래인에 의해 성립된 문화는 야요이 문화 - X
- ⑤ : 허무두는 창장강 하류, 황허강 하류에는 다원커우 문화(신석기)·얼리터우 문화(청동기) - X

팁!

1. '고상가옥'도 키워드. 천재 교과서 내용.
2. 허무두 문화가 량주 문화로 발전했다면, 양사오 · 다원커우 문화는 룡산 문화로 발전했음. 수특 내용이니 구분하자.

2번 - 위만

- 키워드 : '망명자', '준왕을 공격' - (가)는 위만

- 선지 분석

- ① : 삼공구경제는 진·한 - X
- ② : 백등산 전투 패배는 한 고조 - X
- ③ : 위 책봉은 히미코 여왕 - X
- ④ : 위만은 철기 문화 본격 수용함 - 0
- ⑤ : 고조선이 전국7웅의 연과 대립하던 시기는 위만 조선 이전 - X

팁!

1. 위만의 업적 : 철기 문화 본격 수용, 한과 한반도 남부(진)을 연결하는 중계무역
2. 위만의 망명이 진·한 교체기(BC 195)이므로 이 시기에 '전국7웅과 대립'할 수가 없음. 이처럼 동아시아는 앞뒤 맥락을 파악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해결되는 문제가 많음.

3번 - 칭기즈 칸 · 영락제

- 키워드

(가) : '나라를 같이 세운', 천호장, 백호장·십호장 - 칭기즈 칸

(나) : '정화 등에게 ~ 거함 백여 척을 타고 가서 (정화의 항해)' - 영락제

- 선지 분석

- ① : 금 정복은 오고타이 칸 - X
- ② : 국호 원 변경은 쿠빌라이 칸 - X
- ③ : 영락제는 몽골(북원) 원정을 함 - 0
- ④ : 명 건국은 홍무제 - X
- ⑤ : 영락제는 베트남을 잠시 정복했으나 칭기즈 칸은 아님, 베트남 공격은 쿠빌라이 칸 - X

팁!

1. 이번 교육과정에서 갑자기 칭기즈 칸 · 오고타이 칸 · 쿠빌라이 칸을 구분하게 시킨다. 외우자.
2. 칭기즈는 서하·호라즘 멸망, 오고타이는 금 멸망, 쿠빌라이는 남송 멸망.
3. 고려과 남송 '공격'은 오고타이~쿠빌라이, 금 '공격'은 칭기즈~오고타이.
4. 영락제가 베트남 잠시 점령한 건 수완 내용이다.

4번 - 교토

- 키워드 : 간무 천황이 천도, 장안성을 본딴 도성, 메이지 유신 전까지 천황의 조정이 자리잡음 - 교토
- 선지 분석
 - ① : 헤이조쿄는 나라 - X
 - ② : 세종이 토벌한 장소는 쓰시마 - X
 - ③ : 미나토가와 인은 오키나와 - X
 - ④ : 무로마치 막부는 교토 - 0
 - ⑤ : 긴자 대화재는 도쿄 - X

팁!

1. 일부터 헤이조쿄랑 헛갈리게 냈다. 헤이안쿄도 당의 장안성을 모방함.
2. 조정의 이동(개략적) : 야마토 → 나라(710) → 교토(794) → 도쿄(1869)
3. 사실 고대 일본은 천도를 드럽게 많이 해서 나라 시대랑 헤이안 시대에도 잠시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지만 교과서 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4. 미나토가와 인은 수륙 개념.

5번 - 의상

- 키워드 : 당 유학, 신라에서 화염종 개창 - 의상, 7세기
- 선지 분석
 - ① : 대안탑은 7세기 - 0
 - ② : 법현은 4~5세기 - X
 - ③ : 혜초는 8세기 - X
 - ④ : 일본 불교 수용은 6세기 - X
 - ⑤ : 일본 선종 수용은 12세기 가마쿠라 - X

팁!

1. 대안탑 축조 시기를 몰라도 소거법으로 풀 수 있음
2. 의상의 화염종 개창은 수륙 내용. 참고로 원효는 정토종 개창 및 아미타 신앙 전파. 어차피 동시대니까 원효랑 헛갈려도 풀 수는 있는데 수륙 개념 이니까 외우셈
3. 일본에 선종을 전파한 승려는 에이사이. 교과서 개념이니까 알아두면 좋음

6번 - 발해의 율령

- 키워드 : 문적원, 중정대, 연호 '인안' - 발해
- 선지 분석
 - ① : 독서삼품과는 신라 - X
 - ② : 2성 6부는 고려 - X(수륙에 없음, 교과서 개념)
 - ③ : 정당성은 발해 - 0
 - ④ : 발해는 6부에 유교적 호칭을 사용, 따라서 이부가 아니라 총부 - X
 - ⑤ : 좌변관 우변관은 일본 - X

팁!

1. 수륙 53p에 있는 중앙 관제 구성도는 제발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외우자. 탄정대, 오위부, 중정대, 주자감, 좌·우사정, 좌·우변관 모두 기출이다. 문적 원이랑 중정대도 거기 있음.
2. 독자적 연호는 고구려, 발해, 신라, 일본, 고려 초기, 이외 유목 민족들이 사용했는데 어차피 키워드는 그게 아니고 전혀 안 중요하니까 몰라도 됨.
3. 고려 관제는 수륙에는 없는데,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하니까 '2성 6부'만 외워도 됨.
4. 발해의 정당성은 당의 상서성과 기능이 같지만 당의 상서성과 다르게 발해의 정당성을 '국정을 주도함'.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음.

7번 - 돌궐

- 키워드 : 당나라, 토번... 등이 조문, 킨 테킨 비 - 돌궐
- 선지 분석
 - ① : 연운 16주는 거란 - X
 - ② : 쌍성총관부 수복은 고려 - X
 - ③ : 복제, 복주 조공 받는 건 돌궐 - 0
 - ④ : 송첸캬포 대왕은 토번 - X
 - ⑤ : 슈고 파견은 가마쿠라·무로마치 막부 - X

팁!

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킨. 킨 테킨 비는 교과서 개념. 그래도 당나라, 토번을 통해 추론할 수 있으면 베스트
2. 쌍성총관부는 나름 수륙 개념. 여기에 요동 정벌도 수완에 나오니 외워두셈

8번 - 조총 전래

- 키워드 : 도주 도키타카는 ~ 외국제 총 2자루를 사서 가보로 삼았다. - 조총 전래(1543)
 - 선지 분석
- 오년의 난 : 1467~1477
삼포왜란 : 1510
닝보의 난 : 1523
< (다)
경술의 변 : 1550
나가시노 전투 : 1575
센고쿠 시대 통일 : 1590

팁!

1. 수특에 실린 “뎃포기”의 다른 부분. 선지는 전부 수특 연표.
2. 포르투갈 : 물라카 점령(1511), 조총 전래(1543), 마카오 거주권 획득(1557)

9번 - 포르투갈 상인 내항 금지

- 키워드 : ‘포르투갈 인의 내항을 금지한다’ - 1639
 - 선지 분석
- ① : 인삼대왕고은 - 1710~ - X
 - ② : 조선-후금 형제 관계 - 1627~1637 - X
 - ③ : 데지마 네덜란드 상관 - 1641~ - X
 - ④ : 천계령 - 1661~1683 - X
 - ⑤ : 두모포 왜관 - 1607~1678 - 0

팁!

1. 놀랍게도 전부 수특 연표. 네덜란드 상관 데지마 이전만 기출에서 나왔는데, 모르면 안되는 연도.
2. 두모포 왜관도 놀랍게도 수특 답지에 있음. 초량 왜관 설립 연도(1678)를 주면서 이전에는 두모포 왜관에서 교역했다고 함.
3. 인삼대왕고은은 수완 답지. 1710이라는 구체적인 연표가 제시됨.

10번 - 사고전서

- 키워드 : 건륭제, 고금의 책 망라, 경·사·자·집 - 사고전서, 18세기 후반
 - 선지 분석
- ① : 경강상인 - 조선 후기 내내 - 0
 - ② : 사설시조 - 조선 후기 내내 - 0
 - ③ : 데라코야 - 에도 막부 내내 - 0
 - ④ : 경극 - 청대 유행 - 0
 - ⑤ : 천공개물 - 명말청초(17세기) - X

팁!

1. 중국 실학은 명말청초에 유행했다. 본초강목, 농정 전서, 천공개물, 명시대방록 모두 17세기에 편찬되었다.
2. 경극은 청대 건륭제 시기에 등장하였다. 명대에는 없었으므로 참고.

11번 - 하야시 라잔

- 키워드 : 본문 전체, “삼덕초” - 하야시 라잔
 - 선지 분석
- ① : 사서오경왜훈 - 후지와라 세이카 - X
 - ② : 인간 심성 논쟁 - 조선 성리학자 - X
 - ③ : 에도 막부 제도 정비 - 하야시 라잔 - 0
 - ④ : 고사기 연구 - 모토오리 노리나가 - X
 - ⑤ : 중국 고대 성인, 육경 강조 - 오규 소라이 - X

팁!

1. 놀랍게도 수특에 자료 플러스에 그대로 나온 지문이다. 자료 플러스는 내용이 어떤가에 상관없이 무조건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외워 두자.
2. 5번 선지도 그대로 수특에 나와있다.

12번 - 정약용

- 키워드 : 조선 실학, 거중기, 기기도설 - 정약용
- 선지 분석
- ① : 토지개혁론 - 이익, 정약용 등 - 0
- ② : 명대방록 - 황종희 - X
- ③ : 기하원본 - 서광계 - X
- ④ : 심즉리, 치양지, 지행합일 - 왕수인 - X
- ⑤ : 의산문답 - 홍대용 - X

팁!

1. 명대방록은 수록 자료 플러스에 있다. 혹시 모르니 외워두자.
2. “전습록”은 대표적인 왕수인의 저서이다. 알면 굉장히 편하니 외워두자.
3. 놀랍게도 “의산문답”은 수록 오답 선지이다. 이 정도는 알아두도록 하자.

13번 - 임진왜란

- 키워드 : 파병된 중국군, 은 유통 활발, 관우 신앙, 광세의 폐, 환관의 횡포 - 임진왜란
- 선지 분석
- ① : 후금-조선 세폐 - 정묘호란 - X
- ② : 고려 왕과 원 공주 혼인 - 고려-몽골 전쟁 - X
- ③ : 조선 중화주의 - 병자호란 - X
- ④ : 베트남 몽골 조공 - 원의 베트남 원정 - X
- ⑤ : 세키가하라 전투 - 임진왜란 직후 - 0

팁!

1. 임진왜란에 파병된 명군에 의해 은 유통이 활발해졌다는 사실은 수록 개념이다. 명 환관의 횡포도 마찬가지로.
2. 관우 신앙은 교과서 개념이다. 역시 알면 나쁠 거 없다.
3. ‘광세의 폐’라는 키워드는 내가 아마 저번 교육과정에서 많이 봤는데 지금도 있을는지 모르겠다.
4. 베트남이 몽골에게 쫓겨 터진 직후 조공 바친 것도 수록 개념이다. 쯤 왕조!

14번 - 난징 조약, 제1차 사이공 조약

- 키워드
- (가) : 영국에게 광저우 등등 개항 - 난징 조약
- (나) : 베트남 크리스티교 포교 자유, 다낭·바랏·꽝옌 개항, 프랑스 - 제1차 사이공 조약
- 선지 분석
- ㄱ. : (가)는 홍콩, (나)는 코친차이나 3성 할양 - 0
- ㄴ. : (가), (나) 모두 배상금 지불 있음 - 0
- ㄷ. : 외교관 주재 권리는 난징 조약에 없고 텐진 조약 - X
- ㄹ. : 선교사 박해는 (나)는 맞는데 (가)는 아님 - X

팁!

1. 난징 조약도, 제1차 사이공 조약도 배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제1차 사이공 조약은 수록 개념.
2. 제1차 사이공 조약(1862) : 프랑스가 선교사 박해를 구실로 군대 파견 → 선교 자유, 코친차이나 3성 할양, 다낭·바랏·꽝옌 개항, 배상금 지급 규정

15번 - 양무운동

- 키워드 : 중국의 문물제도는 짱, 서양 기계 모방 제조 - 중체서용, 양무운동
- 선지 분석
- ① : 자유 민권 운동
- ② : 태평천국 운동
- ③ : 존왕양이 운동
- ④ : 양무 운동
- ⑤ : 동학 농민 운동

팁!

1. 동학 농민 운동은 반봉건·반외세이다. 수록에는 없지만 교과서들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이 6모에도 나왔으니 한번 읽어보자.
2. 존왕양이 운동은 막부의 탄압과 서양 세력의 반발로 인해 양이 노선을 폐기한 존왕 운동으로 변모한다. 수록 개념이니 알아두자.
3. 양무 운동은 중앙 정부의 체계적 지원 부족, 양무파 내부의 분열로 실패한다. 의외로 중체서용 자체의 한계는 수록에 없다.

16번 - 육영공원

- 키워드 : 육영공원 - 1886
- 선지 분석
- ① : 최초의 일간지 - 독립신문(1896~1899) - X
- ② : 개방장을 잇는 최초의 철도는 경인선(1899) - X
- ③ : 태양력 사용(1873~) - 0
- ④ : 경사대학당(1898) - X
- ⑤ : 철도 부설 기본 정책 확정(1889) - X

팁!

1. 전부 하나도 빠짐 없이 수특 개념이다.
2. 육영공원에는 미국인 교사가 초빙되어 양반 자제를 가르쳤다. 수특 내용이다.
3. 한국 최초 근대적 신문은 한성순보, 최초 민간지는 독립신문

17번 - 태평양 전쟁

- 키워드 : 일본이 동남아시아, 태평양 일대 진출 - 태평양 전쟁(1941~1945)
- 선지 분석
- ① : 산둥 반도 이권 획득 - 1차대전 결과(1919)
- ② : 한중 민족 항일 대동맹(1933) - 만주사변 이후
- ③ : 뤼순 다렌 조차권 - 러일전쟁 결과(1905)
- ④ : 제2차 국공합작 - 중일전쟁 발발 직후(1937)
- ⑤ : 연합군 최고 사령부 - 태평양 전쟁 결과(1945)

팁!

1. 연합군 최고 사령부는 도쿄에 설치되었다. 지역사로 나올지도 모르니까 참고
2. 참고로 일본의 베트남 북부 진주는 태평양 전쟁 전이다(1940).

18번 - 북벌 과정

- 키워드
- (가) : 4.12 상하이 쿠데타(1927. 4. 12.)
- (나) : 장췌린 폭사 사건(1928. 6. 4.)
- 선지 분석
- ① : 5.30 사건(1925) - X
- ② : 난징 국민 정부(1927. 4. 18.) - 0
- ③ : 동북 인민 혁명군(1933) - X
- ④ : 장쉐량 투항(1928. 12. 29.) - X
- ⑤ : 이봉창 투탄(1932) - X

팁!

1. 이상 연표는 전부 수특에 나와있는 내용. 물론 날짜까지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자세한 전개과정이 자료 플러스에 그대로 적혀있다.
2. 북벌 시작 → 4.12 상하이 쿠데타 → 난징국민정부 수립 → 제1차 국공합작 붕괴 → 북벌 재개 → 일본의 산둥 출병 → 국민혁명군의 베이징 점령 → 장췌린 폭사 사건 → 장쉐량이 국민정부를 따를 것을 선언('동북역치'라고 알려져 있음)
3. 동북 인민 혁명군은 수특 답지에 1933년이라고 연도가 제시됨.

19번 - 사회주의 헌법, 대통령 직선제 개헌

- 키워드
- 좌 : 북한 사회주의 헌법(1972)
- 우 : 대통령 직선제 개헌(1987)
- 선지 분석
- ① : 베트남 공화국 수립(1955) - X
- ② : 중일 평화 우호 조약(1978) - 0
- ③ : 3선 개헌(1969) - X
- ④ : 사회당 좌우파 통합(1955) - X
- ⑤ : 텐안먼 사건(1989) - X

팁!

1. 대만은 총통 직선제 개헌(1996), 한국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1987). 총통 직선제 개헌(1996)과 대만 계엄령 해제(1987)는 연도 상 거리가 꽤 있으므로 참고.
2. 베트남 민주 공화국(1945), 베트남 공화국(1955),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1976)

20번 - 자본주의권 경제

- 키워드 - '자본주의 국가'

(가) : 잘 가다가 1998년에 갑자기 떨어짐(외환위기)
- 한국

(나) : 1990~2000년대 계속 저성장 - 일본

(다) : 잘 가다가 2001년에 갑자기 떨어짐 - 대만

A 시기 : 플라자 합의(1985)

- 선지 분석

① : 3저 호황 - 한국, 1980년대 - 0

② : 석유 파동을 경영 합리화로 극복
- 일본, 1970년대 X

③ : 주가, 부동산 폭락으로 장기불황 - 일본, 1990
년대 - X

④ : 미국과 무역 마찰 - 일본, 1980년대 - X

⑤ : 아시아의 네 마리 용 -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 X

팁!

1. 제1차 석유파동(1973) : 한국은 건설업의 증동 진출로 극복, 일본은 경영 합리화와 기술 혁신으로 극복
2. 제2차 석유파동(1979) : 한국은 최초로 마이너스 성장, 일본은 경영 합리화와 기술 혁신으로 극복
3. '경영 합리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정년 설정과 정리 해고임. 그걸 경영 합리화라고 표현하는 거